단식기도 푼 지율 스님 천성산 봄꽃축제 연다

"한번 다녀가세요" 홈페이지 동영상 작업

小食이 38일 단식 원동력 된장국·미음으로 회복중

지율스님을 지켜본 사람이면 누구나 "38일 동안 단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말한다. 38일간의 단식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적게 먹고, 적게 소유하는 지율 스님의 절제된 일상이었다.

"평소 식탐(食貪)이 없어요. 규칙적인 공양 외엔."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박스 하나면 짐 정리가 끝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생활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병원에 가라는 충고를 뒤로 하고 야채를 넣어 끓인 된장 국물과 쌀을 끓인 묽은 미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하며 피로를 회복하고 있다.

"천성산의 봄꽃과 밤 풍경, 바람소리를 담아 보내 드립니다. 한번 다녀가세요."

14일 불교도 정진대회 이후 38일간의 단식을 풀고 천성산으로 돌아간 지율 스님은 몸이 회복되기도 전, 컴퓨터 배우기와 전자우편 작업에 바쁘다.

캠코더를 마련해 천성산의 꽃, 천성산의 밤 풍경, 개구리의 하루 등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제작, 홈페이지(cheonsung.com)에 올리고, 단식기간동안 동참한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낼 궁리에 푹 빠져있다. 건강을 우려하는 주위의 만류도 뒷전이다. 비교적 수월한 회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산행을 할 수 없어 천성산을 둘러보진 못했다.

또한 스님은 천성산의 봄꽃 군락지를 선보일 생각에 3월말이나 4월 초순경 천성산 봄꽃 축제를 소박하게 계획중이다.

이런 저런 행사 계획과 준비를 위해 메일 주소 정리작업과 메일 보내기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스님의 하루는 밀린 공문 작업·자료 정리·활동 계획 수립 등으로 분주하다. 부산시청을 떠나면서 안고 온 숙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결코 쉴 틈이 없다는 것이다.

"말 못하는 천성산의 생명들에게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것은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을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다행히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이 약속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스님의 약속은 월 1회 '지율스님과 함께 하는 천성산 생태기행'이나 '천성산 환경성지 선포식'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다. 작곡가 윤소희, 불자가수 김무한씨 등이 천성산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 계획을 세워놓았다.

지금 천성산에는 얼레지가 만발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밀린 공문·자료정리, 분주한 나날

천성산 소재 노래도 만들 계획

◇불교경전 서예작품이 상설 전시되는 묵선자 불경전시관.

묵선자 불경전시관 개관

불교경전 사경작품 100여점 전시

붓글씨로 쓰여진 불경이 전시되는 공간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 불경 서예 전문 전시관으로는 처음이다.

3월 초, 문을 연 묵선자 불경전시관은 700벌의 금강경 사경을 비롯 반야심경, 아미타경 등 붓글씨로 불경을 사경해 온 묵선자(墨禪子) 박지명(66)씨의 서예작품 100여점이 상설 전시되는 개인서예 전시관이자 새로운 문화 포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상근 불자의 도움으로 문을 연 묵선자 불경전시관은 불교 경전의 깊은 가르침을 묵향에 담아 전시한다.

현재 금정산 무위암에서 작품 활동중인 박씨의 서예 경력은 30여년. 당대의 대서예가였던 부친 남곡 박시표 선생의 뒤를 이어 서예에 입문, 불경 사경에만 전념해 온 그는 이미 백양사, 동화사, 석남사 등 전국 70여 곳의 사찰에 주련과 편액을 썼다. (051)516-3614 천미희 기자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 제자 7명에 강맥 전수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은 4월 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전강식(傳講式)을 갖는다. 2000년 법주사 강주로 있을 때 철운, 지우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한 바 있는 혜남 스님의 두 번째 전강식으로 이날 보명, 선오, 각림, 혜수, 원오, 범천, 여명 등 7명의 제자들에게 강맥(講脈)을 전수한다.

강맥 전수식은 전강을 고하는 헌공, 법을 받는 제자들의 헌다공양, 전법의사, 증표증정, 혜남 스님 전강게 순으로 진행된다.

1991년 해인사 강주를 맡은 이후 동국대 강사, 중앙승가대 교수 및 불전국역연구원장, 법주사 강주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온 혜남 스님은 1967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0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혜남스님의 강맥은 박한영스님, 운기스님에서 이어졌다. 운기 스님은 조선후기의 화엄종주로 불리는 대강백 설파-백파-정관-설두-설유-학명-석전 스님의 맥을 이었다.

천미희 기자

백의관음도·사천왕도·원효대사 영정 등

성보 27건 시지정 문화재 신청

범어사 성보박물관

26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이 개관 준비와 함께 비지정 성보문화재를 시지정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신청을 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성보는 사천왕도, 관음전 백의관음도를 비롯한 불화 8건 11점, 의상조사 영정, 원효대사 영정을 비롯한 영정 6건, 시방삼보자존원패, 석가여래원패 등 공예품 6건과 범어사 말사인 마하사의 목조석가불좌상, 영산회상도 등 7건을 포함 총 27건이다. 특히 백의관음도와 사천왕도 등은 보물급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4월초순 범어사에서 열릴 문화재의원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특별전으로 사명대사, 초영대사, 연백대사 등 역대 범어사에 주석했던 스님들의 영정 1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 대학 등의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불자는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051)508-6139

천미희 기자

◇범어사는 26일 개관을 앞두고 비지정 성보문화재인 관음전 백의관음도의 시지정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탄생

조계종신도회·신행단체련 통합

울산지역의 재가 신도 단체가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손창길)로 통합됐다. 14일 울산 목화예식장에서 창립식과 함께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진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는 30만 울산 지역 사찰 신도회의 대표 기구로 활동해온 울산시 조계종신도회와 9년 전 삼성정밀불자회, 한주불자회, 울산불교여성회 등 직장 직능 단체의 연합체로 탄생한 신행단체연합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탄생했다.

울산불교신도회는 매월 1회 정기 연합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천미희 기자

지하철희생자 위령대재 법연원, 대구시민회관서

(사)법연원(회주 조연)은 14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유가족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하철 희생자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법연원은 100m 비단천에 금강경을 새겨 넣은 장엄을 시민회관에 설치,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박원구 기자

부처골 감실석불은 채색불상

포항MBC, 특별기획 다큐 '경주남산' 제작

포항MBC가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방영하고 있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남산' 4부작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속속들이 파헤친 대작이다. 기획과 자료수집만 1년, 제작비 2억원을 들여 1년 6개월 동안 남산 곳곳을 훑었고 남산 불상의 원류를 찾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까지 발품을 팔았다.

특히 지난 24일 방영된 제2부에선 국내 최초로 형광X선분석기(암석내 성분 함량에 따라 안료의 사용여부 식별)를 사용해 부처골 감실 속의 석조여래좌상(보물 198호)이 본래 채색불상이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포항MBC 홈페이지(http://www.phmbc.co.kr)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숭모제·점등식·타종법회 봉행 4월14~5월 8일

불교합창제·봉축연합 대법회 4월2~5월 4일

대구·부산 부처님오신날 행사일정 확정

부산과 대구의 봉축 행사일정이 확정됐다.

대구봉축위원회는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란 주제로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선덕여왕 숭모제, 전국장애인 산행대회, 봉축등 점등식,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연등축제를 연다.

부산불교연합회도 4월 2일 코모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시민연등축제 결성법회를 시작으로 부산불교합창제,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 제등행렬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천미희·박원구 기자

대구참사 위문 퍼포먼스 한국불교문화예술대학

한국불교문화예술대학은 16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문화예술원 달마선원장 범주 스님을 초청, 선묵화 초대전과 함께 달마도 퍼포먼스(사진)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범주 스님이 3.5m 가량의 대형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국악연주, 살풀이 춤 등이 함께 어우러져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였다.

박원구 기자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밝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병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4일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염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 입니다.

생식원료 현미, 메주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치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컴프리, 감잎, 뽕잎,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9114